

# 지원받은 국비도 못 쓰는 지자체

##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예산 집행률 62.5% 그쳐 영월·태백·화천 하위권 ... 횡성 5억 전액 집행

도내 자치단체들이 국고를 지원받 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하수도 분야 국 고 보조예산 집행률을 점검한 결과 10월말 현재 도내 자치단체들의 집 행률이 62.5%로 전국 평균 68.1%보 다 낮아 올해 목표인 95% 달성이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14억5,500만원의 국고

보조예산을 확보한 영월군이 4억9, 900만원만 집행해 23%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23억4,600만원 중 11억 6,000만원을 집행한 태백시(34.7%) 와 67억7,900만원 중 27억8,900만원 을 사용한 화천군(36.7%)이 뒤를 이 었다.

반면 5억100만원을 지원받은 횡성 군은 전액을 집행했으며 철원군 역시 37억3,100만원의 국비 보조금 중 32

억4,600만원을 사용해 87%의 집행 률을 보였다.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영월군과 태백시, 양구·인제·화천군 등은 설 계와 착공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 연 등으로 사업주진이 지지부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원주 시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 26억원을 삭감해 사업 주진이 활발한 강릉시(왕산·상산)·고성군(토성, 죽 왕)·태백시(황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예산 집행

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평창군 등 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대 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2013 년도부터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불이익 등 패널티를 부 여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매년 반 복되는 하수도 예산의 집행부진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산집 행 부진 자치단체에는 패널티를 부여 하고 예산집행이 원활한 지자체는 내년도 상반기 예산 재조정 시 관련예 산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원주=이명우기자

### ◇정동기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2일 오후 6시 속초시의 한 식당에서 속초·고성·양양지역 회원사와 함

께 간담회를 개최.

## 건설공사기성액 2년째 감소

건설공사기성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종합건설업조사 결과 국내 건설공사기성액은 지난해보다 1.3% 감소한 132조9,987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공사기성액은 2010년 1.4%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2009년 국내 건설계약액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지자체·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이, 공종별로는 토목·조경공사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SOC사업 등 공공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지역건설 활성화 간담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12~13일 일부 지역에서 시·군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업계 및 협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회원사간 토론의 장을 마련해 도회 운영상황을 설명하고 회원사의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12일 오후 6시에는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속초·고성·양양지역 회원사와 함께 1차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어 13일 낮 12시 인제 한국관에서 인제지역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로 도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회원사 간 유대가 강화되고 도내 건설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집을 다시 꾸미고 싶으세요? 건물을 다시 짓고 싶으세요?

주택·건설·건축박람회  
전문박람회

## 강원 eCO+ 홈페어 2012

GANGWON eco HOME FAIR

2012. 11. 29(목) ~ 12. 2(일) 춘천 호반 실내체육관

### 참여가능 업종

- |                |                   |
|----------------|-------------------|
| • 건축 자재        | • 태양열/태양광/지열      |
| • 가구 및 인테리어    | • 음식 및 주방         |
| • 전원주택         | • 냉난방 기기          |
| • 주택 정보        | • 창호재             |
| •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 • 조명 및 전기 시설      |
| • 조경 및 공공시설    | • 건설장비 및 건설안전 보호구 |

### [관람객 무료 체험 행사]

01 에코 친환경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체험

- 친환경 종이 액자 만들기 이번 아가들 사저를 맞아 주세요

**건설업계 애로사항 점검**

건설협 도회·시군협 간담회

· 오늘 속고양·내일 인제지역

도내 시군 건설업계의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간담회가 마련된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정동기)는 12일 속초, 고성, 양양 지역 회원사 대표 41명과 시군 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회원사의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 이날 도회 운영상황을 설명하고 건설산업 진흥시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어 도회는 13일 인제지역 회원사 16명과 간담회를 갖는다.

정동기 회장은 “지역 회원사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CEO의 북마크**

**정동기 건설협회 도회장**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 '밀레니엄'(스티그 라르손)**



각 하기도 한다. 책을 읽다 보면 최고의 복지 국가인 스웨덴의 사회문제들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무슨 뜬금없이 추리소설을 추천할까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맞다. 추리소설을 읽으며 어떤 고상한 감상평이 있을 수가 있을까? 허나 이 소설은 조금 다른 느낌이다. 이 소설을 손에 쥔 다음 마지막 편까지 읽는데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물론

처럼 익숙하게 느껴진다. 밖에서 보기엔 그저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물론 픽션이긴 하지만

**“진실의 힘은 위대하다”**

짧은 소설은 아니다. 총 6권에 1권당 4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아쉬움을 준 책은 실로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다. 밀레니엄 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스웨덴 작가인 스티그 라르손은 당초 10부작으로 이 밀레니엄 시리즈를 계획했지만 3부까지의 원고만 남긴 채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쉽게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 소설의 주된 테마는 과거 냉전시대 스웨덴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내부 정치가 그 상황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밖에도 성매매, 여성인권, 부정부패 등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고발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추리소설 같은 픽션에서는 흔치 않은 스웨덴의 실제 인물(총리 등)을 등장시켜 마치 진짜 일어났던 일이라고 착

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새삼 다 같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그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감추려는 자와 들춰내려는 자. 하지만 결국 진실의 힘은 위대하다. 취업을 위해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이 책을 권하며 진정한 청춘의 의미를 되새겨 볼 것을 희망한다.

◇약력=△원주 △대성고, 강원대, 고려대 공학대학원 건설경영 최고위과정 수료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E지구 부총재 △대성참장학재단 이사장 △도육상경기연맹회장 △대한건설협회 도회장